

2022 전북 평준화 일반고 지원율 1.04대 1

전주·군산·익산서 총 150명 내외 탈락 예상... 비평준화 일반고 지원 증가

전주, 군산, 익산 등 도내 평준화 일반고의 2022학년도 경쟁률이 평균 1.04대 1을 기록했다.

2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2학년도 고등학교 원서접수 결과, 평준화 일반고는 9,024명 모집정원에 총 9,381명이 지원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주가 5,616명 모집에 5,853명이 지원(지

원율 104.2%)했고 군산은 1,728명 모집에 1,788명(지원율 103.2%), 익산은 1,680명 모집에 1,745명이 지원(지원율 103.9%)했다.

전북교육청은 모집정원 보다 지원자 수가 357명(전주 237명, 군산 55명, 익산 65명) 많지만 지원자 수(9,381명)에는 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 지원자

및 정원 외 지원자가 포함돼 있어 실제 불합격자는 이보다 적은 총 150명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년도(2021학년도)에는 8,999명 모집에 9,476명이 지원(지원율 105.3%)해 279명(전주 144명, 군산 65명, 익산 70명)이 평준화 일반고에 진학하지 못했다

한편, 2022학년도 고교 입시에서는 전반적으로 지원율이 감소한 가운데, 비평준화 일반고는 오히려 지원율이 상승해 대조를 이뤘다.

비평준화 일반고는 2022학년도 3,542명 모집 3,281명 지원, 지원율 0.93대 1) 모집정원에는 미달했지만, 전년도(3,580명 모집 3,069명 지원, 지원율 0.86대 1)에 비해서는 지원율이 개선됐다

군산대 학생생활관, 2학기 비교과프로그램 성료

군산대학교 학생생활관은 지난 24일 미리내 봉사단 학생들이 완성한 100개의 탈락도리를 지역 홀몸 어르신들에게 나누어 드리는 기부활동을 마지막으로 2021학년도 2학기 비교과프로그램(SLB Social Club)을 성공리에 종료했다.

이번 비교과프로그램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관생들의 학습스트레스 해소와 건강증진에 중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지난 해 관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비교과프로그램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선정된 7개 강좌를 포함해 총 4개의 종목으로 진행됐다

전북교육청 '겨울방학 학교관리자료' 안내

겨울방학중 학교경영·관리에 필요한 정보·행정 사항 담아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021 겨울방학 학교관리자료'를 마련,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학교관리자료에는 겨울방학중 학교경영·관리에 필요한 각 부서별 정보 및 행정사항을 담았다.

우선 겨울철 대설·한파 피해를 대비해 보고체계 유지, 사전대비 조치 점검, 예방교육, 시설물 안전점검 등을 철저히 해줄 것을 안내했다.

한 과제를 제시하며, 수행평가와 연계한 과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과제 등은 지양하도록 했다.

특히 기초학력 더딤학생의 방학 중 지도를 위해서는 다양한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과 학습 더딤 원인별 맞춤형 지원을 권장했다.

학생 수준에 적절한 기초학습 및 교과학습 프로그램, 나만의 강집 찾기 등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자기 효능감 향상 및 관계회복 프로그램 등을 제시했다.

수업 대비 방안을 안내해 감염병 위기 등 원격수업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감염병 위기 대응과 관련, '2021 코로나19 감염 예방관리 안내(5-2판)'를 숙지해 학생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을 2022년 2월 말까지 수립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겨울방학 학교 관리자료는 겨울방학중 학교경영과 관리에 필요한 정보와 행정 사항을 담고 있다"면서 "안내된 사항을 참고해 학교관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각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전주대,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시간여행권역' 포럼 개최

전주대학교는 지난 21일 전주시 풍남관광호텔에서 2021년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시간여행권역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진행했던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시간여행권역의 5개년 사업 성과를 조명하고 앞으로의 지역관광 문화발전을 위한 전략과 향후 사업에 활용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이 행사에는 한국관광개발연구원 대표, 전라북도청 및 지자체 담당자(전주시·군산시·고창군·부안군), PM단(Project Manager), 테마여행상품 운영사, 시간여행카페 운영사, 협의회회원, 민·관·산·학계 관광 분야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전북체육회, 도내 체육장학생 28명 선정

전주대학교는 지난 21일 전주시 풍남관광호텔에서 2021년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시간여행권역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진행했던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시간여행권역의 5개년 사업 성과를 조명하고 앞으로의 지역관광 문화발전을 위한 전략과 향후 사업에 활용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이 행사에는 한국관광개발연구원 대표, 전라북도청 및 지자체 담당자(전주시·군산시·고창군·부안군), PM단(Project Manager), 테마여행상품 운영사, 시간여행카페 운영사, 협의회회원, 민·관·산·학계 관광 분야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경남대 고계성 교수의 테마여행 10선 사업과 인재 양성 방안'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발제에 이어 경기대 이주형 교수를 좌장으로 전주시청 육문주 팀장, 군산시청 이혜숙 팀장, 고창군청 윤석주 팀장, 부안군청 박현경 과장, 한국여행협회 정후연 부회장, 호남대 김영현 교수, 원드림 장연희 대표, 김영7 김남욱 대표의 심도 있는 토론도 진행됐다.

시간여행권역 총괄 PM 전주대 류인평 교수는 "테마여행 10선 사업의

지난 5년 동안 지자체의 원활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연계 관광의 발전을 마련할 수 있었다"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지역 관광업계가 서로 협력하고 관광의 새로운 트렌드를 파악해 역량을 다지며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22년 지역연계 관광 활성화 사업 2차 보조사업자 공모에 선정, 테마여행 10선의 7권역 홍보 마케팅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전주교육청 이전 반대는 뒷북 행정"

천호성 출마예정자, "서거석 후보의 '미래교육캠퍼스' 구축은 무책임한 아이디어 수준... 총체적인 진로교육 계획 필요"



전라중학교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두고 후보 간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천호성 후보는 서거석 후보가 발표한 '미래교육캠퍼스' 구축에 대해 이는 진로교육에 대한 깊은 고민의 결과라기 보다는 무책임한 아이디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교육청·지자체·대학·기업과의 협업을 강화하는 총체적인 진로교육 계획을 제안했다.

천호성 출마예정자는 24일 보도 자료를 통해 "서거석 출마예정자는 단순히 메타버스, 증강현실, AI 등이 요즘 뜨는 컨텐츠라는 생각으로 즉흥적인 아이디어를 낱알하지 말고 지역소별 학교소별의 위기 속에서 우리 지역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진로교육을 고민하며 미래교육 컨텐츠 지원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교육청의 전주교육지원청 이전에 반대 의견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그는 AR(증강현실), VR(가상현실), 메타버스, 인공지능로봇체험관 등이 들어서고 대학과 연계한 다양한 커리큘럼의 미래캠퍼스가 운영되는 미래교육캠퍼스(가칭)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북미래교육연구소(소장 천호성)는 이미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교육을 위해 별도의 '진로교육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교육부가 지난 11월 24일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에 따르면 학교급 전환시기인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에는 진로연계 학기가 생기며 2025년에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등 초·중·고 교육과정 체계가 크게 달라진다.


이에 천호성 후보는 "서거석 후보가 발표한 '미래교육캠퍼스' 구축에 대해 이는 진로교육에 대한 깊은 고민의 결과라기 보다는 무책임한 아이디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고 덧붙였다.

천호성 후보는 서거석 후보가 발표한 '미래교육캠퍼스' 구축에 대해 이는 진로교육에 대한 깊은 고민의 결과라기 보다는 무책임한 아이디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천호성 후보는 서거석 후보가 발표한 '미래교육캠퍼스' 구축에 대해 이는 진로교육에 대한 깊은 고민의 결과라기 보다는 무책임한 아이디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자료: 질병관리청